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고금조치9호와 호주제가 무슨 상관?



고은광순 이화여대 사회학과 73학번, 대한한의사협회 감사, 함께하는 교육시민의모임 운영위원장, 호주제폐지틀위협시민의모임 대표운영 위원, 참여정치연구회 상임이사(현)

나는 1973년, 이화여대 인문사회계열에 입학했다. ‘어른들의 사회’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3학년이 되어서는 주저 없이 사회학을 전공으로 선택했다. 1961년, 내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해에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이 되었던 박정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도 계속 대통령을 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임기 4년에 한 번 연임할 수 있다는 헌법에 따라 두 번 대통령을 하고 다시 세 번째로 할 수 있도록 헌법을 고쳤다.(69년 3선 개헌) 간접선거에 의해 종신토록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또 다시 헌법을 고쳤다.(72년 유신헌법)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 국민의 저항이 거세어 집에 따라 정부의 탄압도 극악해졌다.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던 220개월(18년 4개월) 중 비상계엄령 3회(31개월), 위수령 3회(5개월), 긴급조치9호(69개월)를 합쳐 모두 105개월(총 집권기간의 48%) 동안 국민들은 비정상적이고 초헌법적인 공포정치 속에서 살아야 했다. 모든 언론기관은 물론 출판물, 영화, 대중가요도 검열의 대상이 되었다. 심지어 영화 속에 나오는 인민군복을 멋지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바느질 아줌마가 정보부에 끌려가 매타작을 당하기도 했다. 70년부터 시작된 한국간행

물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 때문에 만화가는 거리의 거지도 그럴 수 없었으며 코카콜라 광고물에 빨간 색이 너무 많아서 옥외광고를 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75년 5월, 긴급조치9호 공포 당시 나는 사회학을 전공하며 흥사단 이화여대아카데미 회장을 맡고 있었다. 학교 측은 각 학과의 대표와 서클 회장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머리가 하얀, 법학을 전공했다는 대학원장으로 하여금 이 법에 대해 설명하게 했다. “유인물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길가다가 주워들어도 안 된다. 시위도 안 되며, 시위가 있었다고 말해도 안 된다. 위반자는 학교, 직장에서 제적되고, 면허가 취소된다.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해서도 안 되고, 이 조치를 비방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온 몸을 조여 오는 갑갑함을 느꼈고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내가 두 번 구속되어 칼잡을 자면서 춘하추동을 구치소에서 보내게 된 것도 ‘유인물 한 장을 후배에게 전한 것’, ‘시위를 준비하는 후배에게 검은 리본을 준비하라고 말한 것’ 때문이었다. 박정희 사후에 복권이 되고 학교로 복학했지만 전두환의 등장과 함께 별다른 이유없이 두 번째로 제적되고 출국도 금지를 당했다. 나중에 복학하라는 연락이 왔지만 이어지는 군사 독재정권의 비바람을 견디기 위해서는 ‘졸업장 보다는 ‘면허’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몇 년 후 한의대에 입학했다. (10년 만에 다시 입시준비를 했는데 고3때 보다 공부가 너무 재미있었다. +, -, ×, ÷ 등의 기호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것인지, 화학자아보가드로나 그 밖의 학자들이 그렇게 고맙고 아름다운 사람들인지 예전엔 미처 몰랐다.)

한의학과와 본과를 거치며 결혼 두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를 감당해야 했는데 당시의 소원이 밤에 2시간 이상 연속해서 자는 것 일 정도로 육아는 힘든 노동이었다. 흔들리는 만원버스에서 새로 창간된 한겨레를 읽고, 길에서 걸어가 손톱을 깎았다.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한 것에 행복해 하던 시절을 거쳐 92년 한의원을 개원했다.

한의사가 된 후 우연히 약사들을 위한 신문에서 약사들의 엉터리 한약조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사를 스크랩하여 동료들과 함께 보건사회부로 뛰어갔는데 이것이 세상을 몇 년 동안 시끄럽게 한 약사법분쟁의 시작이었다. 2, 3년간 계속된 분쟁의 와중에 컴퓨터 통신을 익히게 되었고 약사법 분쟁이 마무리될 무렵 하이텔 플라자에 전두환, 노태우의 처벌을 요구하는

게시물 '안기부(게시판)서 나온 이즘마 ××번째 이야기' 를 올리게 되었다. 독자의 열띤 호응 속에 6개월여에 걸친 연재를 마무리 하자 이 글들을 묶어서 책으로 내자고 모 출판사는 계약서를 들고 왔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전두환, 노태우가 구속되자 출판은 없던 것으로 하자고 했지만, 전두환 노태우의 구속은 이제야말로 역사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어 기쁘기 그지없었다.

곧 이어 '컴퓨터 통신 속의 여전사' 신정모라를 알게 되었고 다시 여성문제에 빠져들게 되었다. 대한여한의사회보를 만들면서 설문조사를 하고 '아들 낳는 처방의 활용과 이에 대한 문제제기' 를 기획기사로 만들면서 구제불능의 아들 밝힘증과 이로 인한 우리나라 인간생태계 파괴(2010년엔 결혼 적령기 남녀의 비가 129 : 100이 된다 - 1994, 인구문제 연구소)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즉각 아들 낳는 처방의 적용을 금지할 것을 결의하였고 이후 시민단체와의 연대 속에서 공동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1997년 1월 여성단체연합과 대한여한의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남녀성비불균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에 관한 토론회에서 선정과제 1순위로 여남차별의 주범인 호주제폐지를 정했다. 곧 이어 3월 8일 여성대회에서 이이효재 교수님 등과 함께 부모 성 함께 쓰기를 선언하였다.

부모 성 함께 쓰기를 하면서 새삼 놀란 것은 우리 사회의 법이나 국민의식이 수백년 전의 미개하고 원시적인 과학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남자는 씨, 여자는 밭' 이라는 사고방식이 한국 사회에 대단히 광범위하고 뿌리 깊게 퍼져 있었다. 문화운동으로 시작한 '부모 성 함께 쓰기' 는 사회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유엔의 여성지위위원회에서도 가족의 성, 자녀의 성을 선택할 권리를 여성에게도 줄 것(여성에 관한 모든 차별 철폐 협약 CEDAW 16조 G항)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 조항을 아직도 유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1998년 11월, 컴퓨터 통신에서 알게 된 7~8명의 인원으로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을 결성했다. 곧 바로 대학로에서 한 달에 한 번 거리서명을 받으며 대중 홍보에 나섰다. 이 거리서명은 2003년 정부안이 마련될 때까지 5년 동안 계속되었고 나는 부모 성을 합

게 쓰지는 배지와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리본을 7년 동안 가슴에 달고 다녔다.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논쟁을 벌였으며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하고 언론기고를 하는 등의 노력으로 호주제는 서서히 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2000년에는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연대기구를 만들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내었다.

2001년 미국체류 당시 알게 된 정강의선 양과 함께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을 드러내는 그림엽서 8종을 만들어 널리 홍보에 이용하였는데, 부계혈통제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림엽서는 대중들에게 문화적 충격을 줄 정도로 효과적인 도구가 되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부계혈통제, 이들의 아들의 아들에게 혈통이 이어지므로 권력과 부를 아들에게 상속하는 문화는 중국의 종법제를 모방한 것인데 이러한 제도와 문화는 "모든 남자는 모든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파쇼적 논리를 재생산해왔다.

사회의 가장 기초단위인 가정은 남성중심의 호주제 때문에 '성차별 바이러스 창고' 노릇을 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모든 종류의 차별에 둔감한, 저급한 시민의식이 오래도록 대량으로 생산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남자만 씨가 있다' 는 세간의 주장을 확실히 판단하기 위해 서였는지 사회생물학자를 참고인으로 부르기도 했다. 불려온 최재천 교수는 판사들에게 데미무어의 임신한 나신을 보여주며 생물학적인 족보는 우리의 족보와 반대로 암컷, 즉 여성의 혈통만을 기록한다고 말함으로써 호주제, 부계혈통제에 미련을 못 버린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제 호주제의 문제점인 부가(父家)입적, 부가(夫家)입적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분명한 판결이 있었으므로, 법적인 부부차별, 부모차별, 남녀차별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이 헌법을 죽였다〉의 저자, 영남대학 법학과 박홍규 교수는 "호주는 기본적으로 권력관계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상징하는 가장 반민주적인 체제의 최소단위이며, 국가보안법이 사상에 대한 규제라면 호주제는 인간관계에 대한 규제이므로 호주제 자체가 국가보안법" 이라고 말한다. 호주제는 사회의 가장 기초단위인 가족관계를 남성 중심의 수직적 위계질서로 세우는 권위주의의 보루였다. 수직으로 지배하던 인간관계를 수평으로 전환하는 것을 혁명이라고 한다면, 호주제의 폐지는 분명 혁명적인 것이다. 수평적 인간관계에서만 꽃을 피우는 민주주의는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토양을 갖게 되었다.

한국 사회 곳곳에 내재되어 있는 비민주적인 가부장문화, 권위주의, 차별의식 등등이 하루 아침에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호주제의 폐지와 더불어 빠른 속도로 사라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자칭 B급 좌파라며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혐오를 주저없이 드러내는 진보인사들도 무의식 깊은 곳에 파리 틀고 있는 남성우월주의를 버리고 21세기는 양성평등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 않는가.

가끔 길을 가다가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낫째 딸로 태어나 아들 딸 차별을 직,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차별에 예민하게 된 일, 군사독재 시절 사회학을 전공하다가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두 차례 구속과 두 차례 제적을 겪으면서 공공선에 대해 남보다 더 많이 고민하게 된 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한의학을 공부하고, 한의사가 된 후 여전한 아들뱀핍증의 현장을 경험하게 된 일, 두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생명은 우주가 피워낸 소중한 꽃이라는 점을 각성하게 된 일, 약사법 투쟁을 통해 컴퓨터통신을 배우게 된 일, 익명성이 보장되는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드러나는 남성들의 폭력적 언설과 저급한 시민의식의 원인이 권위주의적 가부장제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일... 이 모든 것이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서로 정교하게 맞물려 지금까지의 내 삶을 규정하고 있다는 생각 말이다.

이들 중 어느 하나가 빠졌더라도 지금의 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까지의 내 행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역사의 현장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기도 했지만 바로 그러한 고통은 역사의 진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도 하는 모양이다. 내가 역사의 현장에 있었고 그 속에서 역사의 발전을 추동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내 젊은 날, 긴급조치9호 철폐와 반독재민주화투쟁의 행보



김영철_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73 학번, 민주화추진협의회 전문위원, 한겨레민주당 지구당 위원장, 남북민간교류협의회 공동대표, 시인·소설가(한)

아직도 독재자 살인자 친일파 박정희의 유신명령들이 활개치는 이 땅은 긴급조치9호에 이어 긴급조치10호가 발동이라도 된 듯하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권은 유신헌법이란 해괴한 괴물을 등장시켜 한반도를 감옥으로 만들고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이라는 축수를 무고한 사람들에게까지 뒤집어 씌워 무참히 고문하고 살해했다. 이들의 역사적 반동은 언젠가 다시 과거사 청산의 한 장으로 남겨 두어야 할 일이다.

지난 1973년 나는 성적우수자로 선발되어 4년 간의 대학장학금을 받고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였다. 중앙대는 한강 이남이라는 지리적인 조건으로 인해 운동권 선배들을 만나기 힘든 상황이었으며 이 속에 나는 <사상계>, <다리>, <창조> 등의 잡지와 외국의 혁명사 관련한 책들을 스스로 구해서 탐독하였다.

1학년 한 학기 동안 홀로 의식화 작업을 하면서 한반도를 감옥으로 만들고 온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든 박정희와 그 일파인 파쇼정권을 타도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이런 나의 결심은 당시 같은 대학의 임종철(약학과, 시인) 선배와 수 차례의 시국정담 속에 다듬어졌으며, 임종철 형은 폭 넓은 역사 인식으로 나의 불확실한 지식들을 다듬어 준 논리정연한